

産業體 附設學校 學生들의 職業期待水準에 관한 研究

—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K 여자실업고등학교의 경우 —

金 民 浩

< 目 次 >

- I. 問題의 提起
- II. 理論의 背景
 - A. 非形式 教育의 冷却過程(cooling-out process)
 - B. 非形式 教育機關으로서의 産業體 附設學校
- III. 研究對象 및 研究方法
 - A. 研究對象
 - B. 研究方法
- IV. 結果 및 解釋
- V. 論議 및 結論
 - 參考文獻
 - 英文抄錄
 - 附 錄

I. 問題의 提起

모든 인간은 누구나 心理的이든 社會的이든 어떤 欲求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行動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집단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役割을 수행하도록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個人의 欲求와 集團에서 기대되는 役割은 그 社會의 文化的 規範에 의해 規制되며, 때로는 그 규범을 變化시키기도 한다. 결국 人間의 行動은 欲求, 役割 및 規範의 相互作用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박용현, 1983 : 23~30).

그런데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自我尊重(self-esteem)의 사회적 욕구가 있다(장상호,

1985 : 95~112). 특히, 社會階層間的 삶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따라서 相對的 剝奪感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社會에서는, 疏外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社會·經濟的 地位를 높이기 마련이다.

한편, 學校教育은 現代社會에서 階層移動의 通路로서 간주된다. 즉, 학교교육을 통해 보다 높은 社會적 지위에 요구되는 能力과 資格을 획득하게 되면, 社會적 지위의 상승이 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個人은 階層上昇의 欲求를 학교를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며, 그러한 욕구가 가열되는 學歷競爭社會에서는 자연 높은 教育熱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Boudon, 1977 ; 김병성의, 1982 ; 김신일, 1985).

우리 社會는 個人的 次元에서 만이 아니라 社會的 次元에서도 人間資本論을 근거로 國家 發展 내지 經濟成長이라는 기치아래 學校教育을 지속적으로 擴大시켜 왔다(김신일, 1985).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도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혹은 여타의 이유로 學校教育의 기회를 얻지 못했거나, 얻어도 중도에 탈락할 수 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다. 1971년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은 6년 전에 국민학교에 취학한 아동의 44.2%(434,956명),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은 9년전 국민학교 취학 아동의 70.2%(643,278명)였다. 즉, 1965년에 국민학교에 입학한 100명의 아동 중에서 약 56명이 중학교에 입학했고, 1962년 국민학교에 입학한 100명 중 약 30명 정도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셈이다. 이 수치는 10년 후인 1981년 많이 줄어, 중학교 미진학율이 6.3%(60,574명), 고등학교 미진학율이 30.1% (287,771명)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 중등교육의 확대의 결과라고 여겨지나,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12년전에 국민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83.4%(877,775명)에 나 달한다. 여전히, 교육의 대중화 추세 속에서도, 보다 상위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김재인, 1982 : 157~159).

이러한 未進學 靑少年들의 교육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처방안이 많았다는 것은 결코 아님 —정부는 1976년 教育法을 改定하고, '77년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大統領令'을 公布하여, 근로 청소년들에게 일반 정규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中等教育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1978년에 中學校 課程에 6,819명이 재학했고, 高等學校에는 16,001명이 재학하여 총 22,820명이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학교 에 다녔는데, 1986년에는 중학교 과정은 3,868명으로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 과정은 99,217명 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립업체만 보더라도 76년에 4개에서 86년에는 41개로 늘어났다(한국사회교육협회, 1983 : 57~58, 청소년백서 1987 : 212).

그러나, 이처럼 증가추세에 있는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학교가 이 학교에 재학하는 生産職 勤勞者 學生들로 하여금 애초에 가졌던 자신들의 배움에의 欲求와 社會的 階層上昇의 欲求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고 있는가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다. 本論文에서는 미진학 청

소년 중에서 産業體 附設學校 學生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階層上昇 欲求의 한 표현인 장래의 職業期待水準의 變化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研究問題로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체 부설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장래 직업기대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애초에 가졌던 직업기대수준을 높이는가 아니면 낮추는가? 그리고, 그 변화는 입학당시 가졌던 자신들의 입학동기와는 어떻게 관련되는가?

둘째, 산업체 부설학교에 다닐수록 생산직 근로자로서의 직업만족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그것은 입학동기와는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에 답을 찾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비형식 교육기관이 수행하는 冷却過程(cooling-out process)을 산업체 부설학교가 발휘하는가를 檢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산업체 부설학교가 비형식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색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논의함에도 一助할 것으로 보인다.

II. 理論的 背景

A. 非形式 教育의 冷却過程

冷却(cooling-out)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E. Goffman에 의해서였고(Goffman, 1952) 學校教育의 分析에 그 개념을 도입한 것은 B. Clark와 J. Karabel에 의해서였다.

Clark에 의하면, 美國의 2年制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 학생들은 각자의 教育的 動機에 따라 '순수 완성(대개는 직업)교육형'(pure terminal), '순수 전학형'(pure transfer), '잠재적 완성 교육형'(latent terminal)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중 '잠재적 완성 교육형' 학생들은 생활지도와 상담, 시험; 학년 가르기(낙제제도) 등을 통해 자신들의 '失敗'를 '능력부족'으로 인정하고, '전학형' 과정에서 '완성형'의 과정으로 자신의 進路에 대한 態度를 바꾸도록 촉구받는다. 즉, '잠재적 완성 교육형'의 학생들에게 '전학형'의 코오스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부드럽게, 미국에서 높은 가치로 인정되는 교육기회의 평등의 이념을 훼손시키지 않고 납득시킨다. 이를 가리켜 Clark는 冷却過程이라 명명했다(Karabel, 1972: 210에서 재인용).

그러나, Karabel은 지역사회대학에 관한 Clark의 분석이 '構造化된 失敗의 狀況'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냉각과정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知的 基準은 사람들에게 制度보다 自己自身에서 그 失敗原因을 찾게함으로써, 社會移動 過程에서 非特權的 集團 또는 非學問的 勞動者 階級 출신의 학생들을 배제하는 교묘한 階級的 武器로서 사용된다. Karabel에 의하면 "지역사회대학 운동은 언뜻 보기에 교육기회 평등화의 추진을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現實에서는 그것은 고등교육에 계급성을 띤 복선적인 (교육) 체제를 가지고 들어와, 교육의 단계적 확대의 긴 歷史的 過程을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바꾸는 일 없이 계속시키고 있는 것이다”(Karabel, 1972 : 212~214).

Clark 와 Karabel 이 지적한 冷却過程은 非形式教育에도 적용될 수 있다. Bock 와 Papagiannis 의 연구에 따르면, 비형식 교육은 거기에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높은 지위와의 기대를 낮추게 하여, 그들의 潛在的 不滿을 무마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Dall, Klees, Papagiannis, 1983 : 92). 또한 Bock 는 직업포부수준과 기대와의 일치를 ‘流動性 一致’(mobility consistency)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말레이시아의 形式的인 中等教育을 받은 學生들과 非形式的인 職業訓練課程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比較하면서,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서 높은 유동성 일치(낮은 직업포부 수준과 낮은 기대)가 나타난 반면에, 형식적인 中等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서는 유동성 불일치가 높게 (높은 직업포부 수준과 낮은 기대)나타남을 보고했다. 즉, 비형식 교육은 失業狀態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낮은 水準의 職業에 有用한 認知的·技術的 知識을 전수함으로써, 장래의 직업포부와 현실적 기대를 平衡狀態에 있게 하며, 정치·경제에 대한 不滿要因을 제거한다. 그리고 普遍的이고 正當한 選拔이 교육 체제를 통해 진행됨을 교육 참가자들에게 인식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기능 또한 수행하는 셈이다. 그 결과, 교육 참가자들은 ‘기능적으로 소외된 사람들’(the functionally alienated)이 되고 만다(Bock, 1983 : 163~183).

또한, Dall, Klees 및 Papagiannis 의 연구에 따르면, 비형식 교육기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직업포부수준은 비형식 교육기관이 制度化(institutionalization)될수록 낮아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비형식 교육의 매력은 그것이 國家發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보다는, 학교를 마쳤으면서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잠재적 불만을 완화시키는 하나의 제도화된 기구로서 기능하는데 있다고 지적한다(Dall, Klees, Papagiannis, 1983 : 88~93).

B. 非形式 教育機關으로서의 產業體 附設學校

비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원래 低開發國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이었으나, 성인교육(adult education)에서의 ‘성인’이라는 용어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애매성을 드러내자, 오늘날 성인교육에 대한 대치개념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Coles, 1977 : 7). Coombs 와 Ahmed 에 따르면, 교육은 크게 形式教育(formal education), 非形式 教育(nonformal education) 및 無形式 教育(informal education) 등으로 구분된다. 형식교육이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제도화되고, 연령에 따라 등급화되며,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교육체제” — 보통, 학교교육 — 를 가리키고, 비형식 교육이란 “아동뿐만 아니라 특정집단의 성인들에 대해 특정한 유형의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형식적 교육체제 밖에서 수행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 무형식 교육이란 "모든 사람들이 환경과의 일상적 접촉에서 지식·기술·태도 및 통찰력 등을 획득하고 축적해 나가는 평생의 과정"을 지칭한다(LaBelle, 1976 : 21에서 재인용). 그러나, 비형식 교육이 무형식 교육 또는 형식 교육과 혼동될 경우가 간혹 있다. 예컨대, 매스 미디어의 교육적 기능은 교육 주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비형식 교육에 속하지만, 학습자(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무형식 교육에 가깝다. 또한,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육을 비형식 교육으로 간주할 때 정규학교 밖에서 제공되는 형식교육이 비형식 교육으로 간주될 수 있다(Bhola, 1983 : 48).

따라서, LaBelle은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 무형식 교육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뿐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엄격히 그 선이 구분되지 않으며 강조점의 차이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형식교육에도 비형식 내지 무형식 교육의 특징이 있으며, 비형식 교육에도 형식교육과 무형식 교육의 특징이, 무형식 교육에도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의 특징이 각각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류방식은 모든 교육현상을 구획짓는 장치로서 보다는 교육현상을 發見해내는 장치로서 유용한 것이다(LaBelle, 1976 : 22~23).

<그림 1> LaBelle의 교육에 관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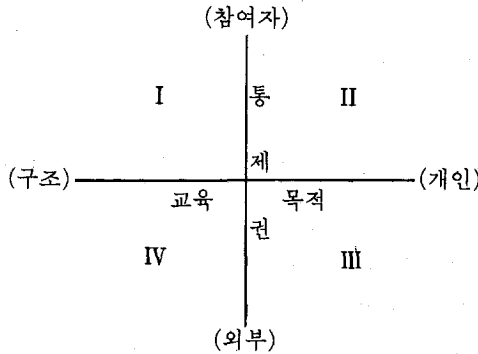
□ : 강조되는 부분

교육적 특징 교육형태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	무형식 교육
형식교육	등급화된 위계적인 학교	과의활동	동료집단
비형식 교육	졸업장 수여	체계적인 학교 밖의 교육	제도외의 참여
무형식 교육	단순한 사회에서의 숲속의 학교	세심한 부모의 교육	일상적인 경험

(LaBelle, 1976 : 23에서 인용, 재조직함)

한편, Paulston과 LeRoy는 비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이란 "꽤 분명한 대상집단의 구체적인 行動變化를 추구하는 지원기관의 短期間에 걸친 구조화되도 체계적인 학교외의 교육 및 훈련활동"이라 정의하며, 교육의 목적—개인의 변화 vs. 구조의 변화—과 통제권—참여자의 통제 vs. 외부의 통제—에 따라 4가지로 유형화한다. 제I유형은 참여자가 통제권을 가지고서 구조의 변화를 추구하는 형태이고, 제II유형은 역시 참여자가 통제권을 지니되 個人的 변화를 추구하는 유형이다. 제I유형과 제II유형의 例로서 Freire의 '解放的'비형식 교육을 들 수 있다. 한편, 제III유형은 제II유형과 마찬가지로 個人的 변화에 관심을 두되, 통제권은 외부에서 행사하는 경우로서 P. Lengrand의 '平生教育'이 이에 가깝다. 제IV유형은 참여자 밖에 통제권이 있으며, 個人이 아닌 構造의 變化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Harbison의 '인간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Coombs의 '농촌개발'모형 등이

이에 속한다(Paulston and LeRoy, 1975 : 575~596).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2 > Paulston 과 LeRoy 의 비형식 교육에 관한 분류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社會教育*이란 “기간학제에 속하는 正規學校 外의 형식, 비형식 교육체제를 갖춘 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하여 의도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형태의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8 가지 형태로 구분했다. 즉, ① 학교중심의 사회교육 기관 ② 준학교체제의 사회교육 기관 ③ 관인·사설학원 및 신고학원 ④ 민간단체 설립 사회교육 기관 ⑤ 공공연수기관 ⑥ 자원단체 사회교육기관 ⑦ 문화시설 중심 사회교육기관 ⑧ 기타 등이다. (한국교육개발원, 1982 : 11~16)

産業體 附設學校는, Coombs 와 Ahmed 의 분류에 따르면 非形式 教育으로 분류되며, LaBelle 에 의하면 졸업장의 수여 등 형식교육의 특징을 지닌 非形式 教育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분류방식에 의하면, 準學校體制의 社會教育機關에 속한다. 한편, Paulston 과 LeRoy 에 따르면, 외부(교사, 기업체, 문교부 등)에서 統制하며, 구조 내지 집단의 변화(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사협조의 강화, 기술인력의 확보 등)를 目的으로 하는 제IV유형의 非形式 教育이라 할 수 있다.

III. 研究對象 및 研究方法

A. 研究對象

本 論文에서는 산업체 부설학교들 중에서 연구의 편의상(연구자는 자료수집 당시 서울근교에 거주했음), 서울시내 영등포에 소재하는 ‘K여자 실업고등학교’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학교의 3학년 3개 학급 중에서 1개 학급(45명)과 1학년 3개 학급 중에서

* 비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에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적 개념은 ‘社會教育’이라 할 수 있다.

1개 학급(41명)을 標集對象으로 삼았다. 그 중에서 입학동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2개 이상의 사례를 제시한 4명은 제외하여 3학년 43명과 1학년 39명 계 82명만을 실제의 분석대상으로 채택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3학년이 만 20.3才였고, 1학년이 만 17.3才였다.

B. 研究方法

研究方法은 設問紙를 사용한 量的 接近이다. 設問調査는 연구자가 제작한 설문지를 K여 자 실업고등학교 교사에 의뢰하여 1984년 12월 초에 실시했다.

설문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入學動機를 묻는 부분(4번 문항)이고, 둘째는 입학 당시에 가졌던 장래직업에 대한 기대가 1년 내지 3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묻는 부분(6번문항)이며, 셋째는 현재의 생산직 근로자로서의 직업만족도를 묻는 부분(10번문항)으로 구성되었다.

入學動機를 묻는 문항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했다. 즉 4번 문항 중에서 ①에 답한 사람은 '進學型'으로 ② 또는 ③에 응답한 사람은 '就業型'으로, 그리고 ④ 또는 기타에 응답한 사람은 '尙學型'으로 구분했다.

장래 職業에 대한 期待의 變化는, 입학 당시와 비교해서 '변함없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하는 경우' 및 '더 낮은 수준을 기대하는 경우'로 분류했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그 理由를 물었다(7번, 8번, 9번 문항).

또한 자신의 學歷水準에 따른 職業滿足度에 대한 반응은 10번 문항에서 네 개의 문항으로 조사했는데, ① 또는 ②에 답한 사람은 '滿足型'으로 ③ 또는 ④에 응답한 사람은 '不滿足型'으로 분류했다.

더불어, 직업기대수준을 높게 잡은 고3 학생들이 왜 그같이 생각했는지도 물어서, 社會的 資格(졸업장)을 중요시 했는가(8번 문항 중 ①에 답한 경우) 아니면, 個人의 能力을 중요시 했는가(8번 문항 중 ② 또는 ③에 답한 경우)를 알아 보고자 했다.

IV. 結果 및 解釋

위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조사된 설문지 문항을 분석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入學動機에 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급학교(대학)에 진학을 목적으로 입학한 학생은 전체의 24.4%, 보다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 자격이나 지식·기술 등을 습득하려는 목적이 19.5% 임에 비해, 단지 더 많은 지식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입학한 경우가 56.

1%나 차지했다. 이것은 산업체 부설학교가 대학 진학을 주된 목표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나, 취업을 전제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와는 달리 미진학 청소년의 교육욕구의 충족이라는 獨特性을 지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 1> 입학동기의 유형

단위:명 ()는 %

입학동기\구분	고 3	고 1	계
진 학 형	10(23.3)	10(25.6)	20(24.4)
취 업 형	8(18.6)	8(20.5)	16(19.5)
향 학 형	25(58.1)	21(53.8)	46(56.1)
계	43(100.0)	39(100.0)	82(100.0)

A. 産業體 附設學校는 學生들의 職業期待水準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론적 배경에서 지적했듯이, 말레이시아에서의 非形式的인 職業技術教育은 形式的인 中等教育에 비해, 학생들의 직업기대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즉, 冷却過程의 효과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체 부설학교 학생들은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달랐다. <표 2>에 의하면 산업체 부설학교를 1년 정도 다닌 학생들의 경우, 입학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의 직업을 기대하는 학생들이 20.5%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직업을 기대하는 학생들은 46.2%나 되었다.

<표 2> 입학당시와 비교할 때, 장래 직업수준에 대한 기대의 변화

기대유형 \ 구분	고 3	고 1	계
더 높은 수준 기대	24(55.8)	18(46.2)	42(51.2)
변화된 바 없음	17(39.5)	13(33.3)	30(36.6)
더 낮은 수준 기대	2(4.7)	8(20.5)	10(12.2)
계	43(100.0)	39(100.0)	82(100.0)

보다 오래 학교에 다닌 고 3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직업을 기대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고 1의 경우보다 컸다(55.8%). 입학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의 직업을 기대하는 학생들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것은 비형식 교육기관에서 오래 교육받을수록, 자신들의 직업 수준이 높아질 것임을 더 많이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장래의 직업을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대하는 학생들에게서, 구체적인 희망 직

업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자신의 장래직업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정함을 알 수 있다.

<표 3> 장래 기대되는 더 높은 수준의 직업

직업명 구분	계	사무직	공무원	간호원	디자이너	가수	여경찰	유치원 교사	교육자	여군	농업	취미 생활	무응답
고 3	24	12	6	·	·	·	1	1	·	·	·	1	3
고 1	18	·	3	3	2	2	·	·	1	1	1	·	5
계	42	12	9	3	2	2	1	1	1	1	1	1	8

반면에 고 1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막연이 높은 수준의 직업을 기대할 뿐,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거나(무응답 5명), 생각했다 하더라도 낭만적인 면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디자이너, 가수 등을 기대함).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장래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고 3 학생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직업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인 이유

이유	구분	고 3	유 형
자격 취득		6(25.0)	자격 강조형
지식과 기술 획득		12.(50.0)	능 력
진학할 수 있는 실력의 축적		2(8.3)	강 조 형
무 응 답		4(16.7)	
계		24(100.0)	

<표 4>를 보면 K여고 3학년 학생들은 상위 수준의 직업획득에, 자격보다는 더 나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 응답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들이 생산직보다 나은 수준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었던 중요한 원인은 자신들의 學歷이 낮아서가 아니라, 즉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知識과 技術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産業體 부설학교 학생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職業配分이 能力主義(meritocracy)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다. 이들 자신들은 지식과 기술이 缺乏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직업수준 밖에 성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산업체 부설학교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배운 사람'이 되고, 그 결과 '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직업분배-소득의

분배도 관련됨—가 능력이라기 보다는 資格(學歷 내지 卒業狀)에 우선적으로 근거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강순원, 1988). 결국, 이들 산업체 부설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든 아니면 학교 밖에서든, 能力主義 이데올로기에 社會化됨으로써 기존의 社會秩序에 순응적으로 편입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입학동기와 관련하여 K여자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기대수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입학동기별 장래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의 변화

입학동기 구분 기대유형	진 학 형			취 업 형			향 학 형			계
	고 3	고 1	계	고 3	고 1	계	고 3	고 1	계	
더 높은 수준 기대	4 (40.0)	3 (30.0)	7 (35.0)	6 (75.0)	6 (75.0)	12 (75.0)	14 (56.0)	9 (42.9)	23 (50.0)	42 (51.2)
변화된 바 없음	4 (40.0)	5 (50.0)	9 (45.0)	2 (25.0)	1 (12.5)	3 (18.8)	11 (44.0)	7 (33.3)	18 (39.1)	30 (36.6)
더 낮은 수준 기대	2 (20.0)	2 (20.0)	4 (20.0)	0 (0.0)	1 (12.5)	1 (6.3)	0 (0.0)	5 (23.8)	5 (10.8)	10 (12.2)
계	10 (100.0)	10 (100.0)	20 (100.0)	8 (100.0)	8 (100.0)	16 (100.1)	25 (100.0)	21 (100.0)	46 (100.0)	82 (100.0)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고 3·고 1 모두에 있어, 다른 직업에의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내지 자격획득을 목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취업형)중에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장래 직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은(75%정도) 반면에, 상급학교(대학)에의 진학을 목적으로 또는 장래 직업과는 비교적 무관하게 단지 더 많이 배우려고 입학했던 사람들 중에는 직업기대수준이 높아진 경우가 취업형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 (35~50%). 더구나, '향학형'의 고 1의 경우에는 23.8%의 학생들이 산업체 부설학교를 마치고 나서의 직업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것은 단지 배우기 위해 입학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1년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거나, 사회의 취업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結論적으로, 산업체 부설학교는 예상과는 달리 학생들의 직업기대수준을 낮추기 보다는 오히려 높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직업의 획득에 필요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얻으려 입학했던 학생들의 직업기대수준이 입학 당시보다 많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B. 生産職 勤勞者로서의 현재의 職業에 대한 滿足度는 學年이 올라감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론적 배경에서 기대된 바로는, 비형식 교육기관에 오래 머물수록 그리고 비형식 교육기관이 制度化되어 있을수록 직업기대수준이 낮아지고, 그 만큼 현실에 대한 불만은 적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K여자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이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學歷(교육연한)에 따른 직업만족도는 낮아지고 불만이 더욱 커짐을 <표 6>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장래 직업기대수준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더욱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표 6> 학력에 따른 직업만족도

유형 \ 구분	고 3	고 1	계
만 족	18(41.9)	24(61.5)	42(51.2)
불 만 족	25(58.1)	15(38.5)	40(48.8)
계	43(100.0)	39(100.0)	82(100.0)

즉, 學年이 올라감에 따라 자신들이 배운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해 자신의 職業이 劣等하다고 생각하고 不滿을 품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을 기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入學動機에 따라 현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앞서서도 '취업형'이 장래의 직업기대수준을 학년이 높아감에 따라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더 높게 기대했듯이, 현재의 직업수준에 대한 불만족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진학형'에서 고 3과 고 1의 직업만족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인 것은, 상급학교에의 진학을 목적으로 산업체 부설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입학 당시에는 자신의 직업수준을

<표 7> 입학동기별 자신의 學歷수준에 따른 직업 만족도

입학동기 구분 기대유형	진 학 형			취 업 형			향 학 형			계
	고 3	고 1	계	고 3	고 1	계	고 3	고 1	계	
만 족	4 (40.0)	8 (80.0)	12 (60.0)	3 (37.5)	4 (50.0)	7 (43.8)	11 (44.0)	12 (57.1)	23 (50.0)	42 (51.2)
불 만 족	6 (60.0)	2 (20.0)	8 (40.0)	5 (62.5)	4 (50.0)	9 (56.3)	14 (56.0)	9 (42.9)	23 (50.0)	40 (48.8)
계	10 (100.0)	10 (100.0)	20 (100.0)	8 (100.0)	8 (100.0)	16 (100.0)	25 (100.0)	21 (100.0)	46 (100.0)	82 (100.0)

다른 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나 졸업할 즈음에는 생산직 근로자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취업형'이나 '항학형'보다 입학 당시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結論적으로, 산업체 부설학교의 교육은 생산직 근로자 학생들의 현재의 직업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데 관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체 부설학교가 갖는 긍정적 효과 — 예컨대, 미진학 청소년에의 교육기회의 확대와 배움에의 욕구충족 — 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직업만족도의 결과를 고려할 때, 산업체 부설학교는 근로자들에게 生産勞動의 價値를 否定하는 데 매개적 기능을 담당했다고 하겠다.

V. 論議 및 結論

本 論文에서는 외국의 先行研究들에 비추어, 非形式 教育機關으로서의 産業體 附設學校가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職業期待水準을 낮추고 職業에 대한 不滿 要因을 除去하는 데 機能하고 있는지 — 즉 冷却過程의 機能 — 를 檢證하고자 했다.

그러나, 調査結果는 외국의 경우와 반대로, 오히려 산업체 부설학교는 학생들의 직업기대수준을 높이고, 자신의 현 직업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데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이 연구결과의 不一致가 초래된 까닭은 몇 가지 점에서 論議될 수 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학생들 자신의 心理的 狀態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신들의 취업의 유무와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상 差異에 있다. 즉 말레이시아의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失業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취업의 기회를 — 비록 낮은 수준의 직업이긴 하나 — 직업훈련과정을 통해 얻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 현실에의 불만요인이 줄어들고 과거 실업상태에서 가졌던 직업기대수준이 훈련과정의 지식과 기술 수준에 맞게 조정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산업체 부설학교 학생들은 現在 就業狀態에 있으며, 또한 生産勞動과 직접 관련된 지식과 기술 만이 아니라, 소위 人文教養科目들(liberal arts)을 배워 장래 生産職이 아닌 事務職에의 就業期待를 갖게 되고 현재의 직업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이같은 심리적 상태는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의 教育體制 및 雇用構造의 差異에도 연유한다. 즉, 말레이시아는 形式教育과 非形式教育(특히, 직업기술교육) 간에 差等を 두는 複線型 教育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고등교육은 형식교육의 課程에만 그것도 한정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 자신의 進路의 決定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지고, 그 결정에 순응하게 된다. 즉 자신들이 속한 코오스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에 부응하는 직업수준에 만족한다. 물론, 이 때에도 교육을 마친 뒤 순조롭게 취업함을 전제로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형식적 中等교육을 마친 실업상태의 사람에게서 유통성 불일치가 높

은 반면, 직업기술교육과정을 거쳐 낮은 수준이긴 하나 취업이 예상되는 사람에게서는 유통성 일치가 높은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教育體制는 대체로 單線型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의 기회도 폭넓게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비형식 교육기관으로서 산업체 부설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높은 수준(인문교양 중심)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서 자신의 進路에 대해 多樣한 期待를 하게 될 것이다. 대학에 진학한 것인가, 아니면 타 직업(사무직 위주)으로 轉職할 것인가 등을 생각해 보고, 그 현실성 여부를 타진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래 직업기대수준이 입학 당시보다 높아지고 현재의 생산직에는 불만을 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체 부설학교가 冷却機能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산업체 부설학교 학생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획득에 있어 자격보다는 지식과 기술을 더 중요시 여김은 能力主義를 사회적 선발의 원리로 믿기 때문이다. 즉,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個人의 能力에 달려 있으므로, 社會構造的 不平等 問題는 관심 밖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교육기회를 놓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근로 청소년들이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았으니, 대학에의 진학 여부 또는 사무직과 같은 직종에의 취업문제는 社會的 責任이 아니고 오직 自身の 能力 여하에 달려있다 믿을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교육기회를 제공했다고 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기회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어도 平均學歷水準만 높아질 뿐 사회 내부의 계층구조는 교육기회 확대 以前과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Boudon, 1977). 이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체 부설학교는 職業期待水準과 관련하여 冷却의 效果를 갖지는 않으나, 現 社會의 構造的 不平等 問題를 어떻게 認識하는가에 대해서는 冷却機能을 유감없이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체 부설학교 전체에 대해 위와 같은 結論을 내리기에는 아직 많은 制限點이 따른다. 우선, 연구의 標集對象이 數的으로 적었고, 또한 標集의 구성면에서도 인문계 산업체 부설학교와 男子는 제외되었기에 표집집단의 代表性이 弱하다. 또한, 設問紙를 통한 調査가 학생들의 생각, 느낌을 얼마나 정확하게 포착했는가를 단언할 수 없다. 학생들과의 면접, 참여관찰의 기회가 후속연구들에서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강순원(1988), 대학러시의 주범 학력간 임금격차. 신동아 88년 6월호, pp. 630~637.
 김병성 외(1982), 학교교육과 사회적 성취,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신일(1985),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김재인(1982), "미진한 청소년의 교육적 환경"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편), 평생교

- 육과 사회교육, 서울 : 배영사.
- 박용현(1983), *사회적 행동과 학습*, 서울 : 교육출판사.
- 장상호(1985), *학습의 인간화*, 서울 : 교육과학사.
- 정진성(1984), *전문대학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 대책위원회(1987), *청소년 백서*, 서울 : 국무총리 행정 조정실.
- 한국교육개발원(1982), *사회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사회교육협회(1983), *사회교육총람*, 서울 : 정민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2),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Bhola, H. S.(1983), "Nonformal education in Perspective" in *Prospects vol. 13, No. 1*, pp. 45~53.
- Bock, J. C. (1983), "The Institutionalization of Nonformal Education: A response to conflicting needs" in Bock, J. C. and Papagiannis, G. J.(ed), *Nonformal Educ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pp. 163~183.
- Boudon, R. (1977),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 A structural model" in Karabel, J. and Halsey, A. H. (ed.),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pp. 186~196.
- Clark, B. R. (1960), "The 'cooling-out' function in higher education" i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5.*, pp. 569~576.
- Coles, E. K. T. (1977), *Adult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Oxford : pergamon press.
- Dall, F., Klees, S., Papagiannis, G. J. (1983), "Nonformal Rural Development on occupational aspirations of unemployed Youth" in Bock, J. C. and Papagiannis, G. J. (ed), *op. cit.*, pp. 87~100.
- Goffman, E. (1952), "On Cooling the Mark out" in *Psychiatry vol. 15*, pp. 451~463.
- Karabel, J. (1977), "Community College and Social Stratification : Submerged Class Conflict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in Karabel, J. and Halsey, A. H. (ed.), *op. cit.*, pp. 232~254.
- LaBelle, T. J. (1976), *Nonformal Education and Social Change in Latin America*, Los Angeles : UCLA Latin America Center Publications.
- Paulston, R. G. and LeRoy, G. (1975), "Strategies for Nonformal Education" in *Teachers College Record vol. 76, No. 2*, pp. 569~596.

< Abstract >

A study on the occupational expectation of the pupils in
'K girls' industrial high-school' attached to industry

by Kim Min-ho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occupational expectation and job satisfaction of the laborer-pupils in school attached to industry, and verify the cooling-out process of nonformal education in Korea.

We sample 86 laborer-pupils which include 45 in the first grade and 41 in the third grade of the 'K girls' industrial high school' attached to industry and carry out a survey through questionnaire early in December, 1984.

As the results of survey, it is known to us that the pupils' occupational expectation usually rise and the pupils' job satisfaction drop beyond expectation. That is, the K school don't perform the cooling-out.

The unexpected results are due to two factors. The one is the pupils' mental state that they can ascent the upper occupations by means of learning of liberal arts. The other is the single educational system which enables the pupils to reach higher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segmentation by years of schooling.

Consequently, the schools attached to industry perform ideological function legitimating the inequally structured society, although they don't conduct the cooling-out in view of occupational expectation.

3.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4. ()
9. 장래 직업에 대한 기대가 입학당시 보다 '낮아진'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이 학교를 졸업해도 사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2. 이 학교를 졸업해도 더 나은 자리로의 취직기회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3.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실력을 쌓지 못했기 때문이다.
 4. 더 나은 수준의 직업을 얻는 것보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5. 상급학교에 진학하려해도 돈이 없기 때문이다.
 6. 기타()
10. 여러분은 자신의 학력수준과 비교할때 현재의 직업수준에 만족하십니까? ()
1. 대단히 만족한다 2. 보통이다
 3. 약간불만이다 4. 대단히 불만이다